

소통하는 부부 공감하는 아이들

진주은

얼마 전 한국에서도 그리고 이민사회에서도 꽤나 감동을 주어 한 동안 화자 되었던, '응답하라 1988' 일명 '응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1980년대 말, 시대적 배경 속에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린 드라마였다.

드라마를 즐겨보지 않는 필자에게 가슴속에 남은 드라마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 속에 녹아있는 주인공 '덕선'과 동시대를 살았던 추억의 빛장을 열어보는 즐거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즐거움 안에 담긴 '소통'이라는 두 단어를 깊이 생각하게끔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서로 간 상호의존적이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가 자신을 아주

잘 알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 상대가 실제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이상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흔히들 부부를 '무촌'이라고 말한다. 그 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뜻이며 앞서 언급한 잘못된 기대가 작용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섭섭함이나 아쉬움 또한 부부관계 속에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상 속에서 대화를 통한 소통이다. 그러나 대화를 많이 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결코 소통이 잘되는 부부라고 말할 수 없다. 부부상담을 통한 경험으로 보아도 그렇고 주변의 부부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다. 토론도 안에서 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거의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간 소통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장거리로 나뉘어 생활하지만 건강한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보다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날마다 상대방을 보면서 지척하고 비난하며 조롱하는 소통의 방식이 익숙해진 부부의 관계, 또는 전혀 말 한마디가 없는 부부의 관계, 그 가정 안에 속한 아이들은 날마다 그 만큼의 불행과 좌절의 경험을 통하여 시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통의 건강한 방식은 마음을 나누는데 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고 싶다면 배우자를 칭찬하고

공감하고 격려해 주라고 말하고 싶다. 배우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잘하고 있어! 힘들지? 수고했어! 당신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앞서 말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에서 성인이 된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며 나레이션을 한 구절 중에 가슴에 박힌 말이 있다.

"말에는 가슴이 담긴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에도 체온이 있는 법이다."

드라마 속에서 이루어졌던 소통을 전제로 하는 평범한 부부를 통해 아이들에게 흐르고, 음식을 이웃과 나누고, 학용품 친구에게 빌리고, 서로의 고민을 힘닿는 데까지 해결해주는 장면들이 그저 배경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서사의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 이 냉혹해지는 바깥사회의 현실 속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따뜻한 체온이 담긴 소통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훗날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형성된 그 풍성한 가슴은 그들이 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조직 안에서 발현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정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COMMUNICATING COUPLES, EMPATHIZING CHILDREN

JIN JUEUN

There was a drama called 'Reply 1988' that was on everyone's lips and impressed both people in Korea and immigrant community. It portrayed a typical family's life living together with neighbors in the late 1980's. The reason why it remembered as a most impressive drama for me (whom does not enjoy watching drama) was not only because of joy of comparing and sharing the memory with 'Duksun' who is contemporary with me but also it allowed me to think deeply about the true meaning of 'communication' along with the joy. We commonly think that we know and understand very well about people who are closer to us. However, it is quite distant from the reality. According to a research, it was estimated that the closer and more interdependent a person to another, the better the people know about him or she. But the result showed different conclusion; eventually, people anticipate more from others than the others actually think about them. We commonly say that there are no degree of ki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It means they

are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that much and it is the relationship that wrong anticipation could act that was previously mentioned. Therefore,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can arise within conjugal relations. The key to solve such emotions is communication in daily life through healthy conversation. However, it cannot be told as a well-communicated couple even they have a lot of conversation and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It is so both through my experience about marital counseling and cases of couple around me. Even if the couple is spending almost 24 hours together running same business, if there is a problem with the way they communicate, it can be said that their relationship is worse than the couple living far apart and having healthy communication. The conjugal relationship that accustom to criticizing, jeering and pointing out each other's flaw-type of communication or the relationship that there are no communication, we should know that children that are raised in such family are wilting as they are experiencing frustration and blaming about their misfortune. The healthy communication comes from sharing minds. If you want to make a happy family, happy children, I want to tell them praise, empathize and encourage your spouse. Even you see the weakness or inadequacy of your

spouse, say "You're doing well! Isn't it hard? You did well! Only you can do this!!...."

There was a line that stuck in my mind from the previously introduced drama 'Reply 1988' and it was from the scene where 'Duksun' the main character reminisce the past and narrating.

**"WORD CONTAINS ONE'S MIND.
THEREFORE, EVEN SHORT WORD
CONTAINS ONE'S TEMPERATURE"**

The narration that was made on the premise of healthy communication in drama flow through typical couple to children and the scenes of sharing food with neighbors, borrowing stationery from friends, solving each other's problem as possible as they can were not just the background but became the most salient component of narration.

And yes. Having healthy communication containing warm temperature in home gives people the power to live in harsh outside society. Children grew up watching their parents unconditionally supporting and trust each other would eventually make such healthy family. Also, the 'abundant' mind of children that was made in healthy family would be revealed in a society when they become a member of society; the influence of a person who is warm-hearted would change home, neighbor, society and nation.